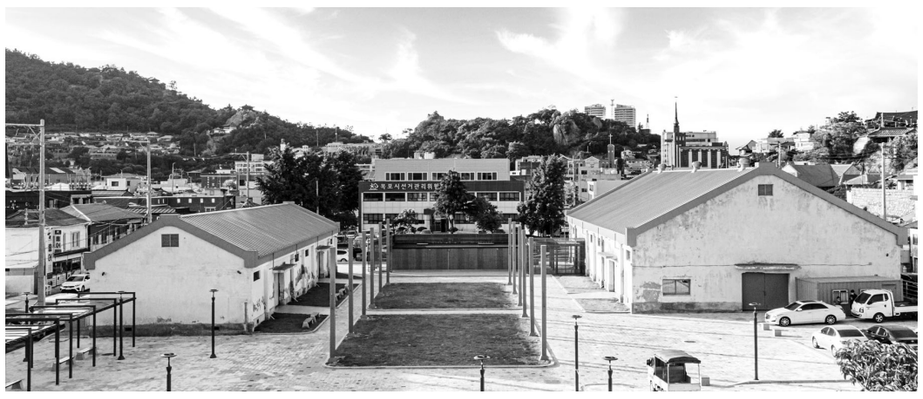
‘전남 유니크베뉴’ 마이스산업 육성

〈독특한 장소〉

道, 구례 쌍산재 등 20곳 선정
우수 자원 연계 차별화된 시설
국내외 관광객 1억명 유치 온 힘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만의 매력과 특별함을 지닌 마이스(MICE) 시설인 ‘전라남도 유니크베뉴’를 선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1억명 유치에 온힘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여수 예울마루&장도 예술의 섬, 나주 3917 마중, 구례 쌍산재, 무안 황토갯벌랜드, 장성 청백한옥 등 18개 시·군 20곳이다.

전남도는 이번 유니크베뉴 선정을 통해 자연·생태·역사·문화 등 전남의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시설을 널리 알려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한’의 의미인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의 합성어로서 컨벤션, 호텔 등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회의 장소를 뜻한다.

선정은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2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고유의 특성 및 매력도 ▲마이스 행사 적합도 ▲운영 역량 및 참여 의지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구 목포 세관창고로 활용됐던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987, 문화예술의 너울이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함이 깃든 여수 예울마루, 자연 속 고택의 멋과 낭만을 지닌 구례 쌍산재,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등이 이색 시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선정 유니크베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설 개선, 설명회 및 박람회 등 각종 홍보 마케팅 활용, 도내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가산 등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니크베뉴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추후 운영 현황 등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우수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라며 “다양한 유니크베뉴 발굴·육성으로 지역 마이스산업을 특화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외교당국, 산케이 보도에 “日 언론 왜곡 보도 유감 표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또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도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일본 언론을 겨냥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 계획 아직은 없다”

군부대 이전 정상 복원 우선 고민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결정 이후 지역 사회단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시장은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우선 고민하고 있다”며 “이전·복원이 끝나면 기존 군용도로에 대한 (활용·원상 복원 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군,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오는 9월을 목표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 부위에 주둔한 방공포대도 대상지를 물색해 연말까지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1966년 이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리는데 당분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등산 자연환경보존 케이블카설치 범시민운동본부와 광주 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인이 서양인 보다 치매 위험도 두 배 이상

치매국책연구단 조선대 이건호 교수팀, 글로벌 토론회 보고

한국인이 서양인 보다 치매 발생 위험도가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미국 최고 권위의 치매연구 기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 제시돼 향후 글로벌 치매 예방 및 치료 분야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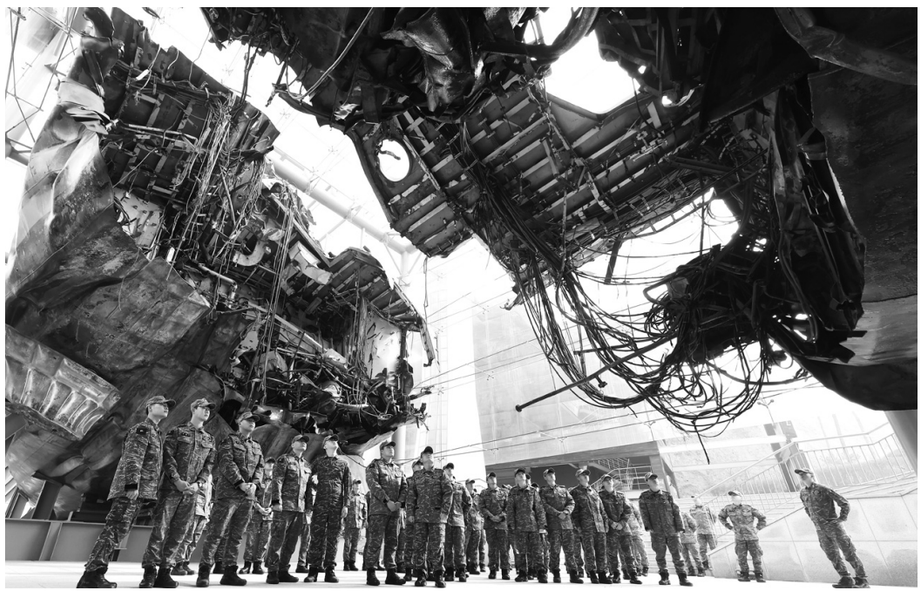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한국인 1만7000여명, 일본인 1만9000여명 그리고 미국인 2만1000여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E4형 아포이유전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E4형 유전자를 보유한 한국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도가 무려 2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서양인의 경우 이 유전자 보유자는 정상인에 비해 14배 정도 발병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국책연구단장인 이건호 교수는 “한국인은 서양인과 달리 같은 E4형 아포이유전자 중에서도 T타입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90% 이상이다”며 “T타입 유전변이는 아포이유전자의 정상적인 단백질 생성기능을 감소시킴으로써 치매 발병을 촉진한다”는 새로운 치매발병 원리를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처참한 천안함 보며 서해 수호 결의 20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박동혁 함 등 유도탄고속함(PKG) 승조원들이 서해 수호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2함대 소속 전 함정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천안함 용사 등 서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전우들을 상기하고 결전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한 주간 ‘서해 수호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40대 초반 신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다

25년간 혼인건수, 20대 93% 줄고 40대 여성 50% 늘어

만혼(晩婚)이 심화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인 1만113건보다 많았다.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웃돌았다. 2021년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1만412건으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985건)를 앞선 바 있다. 이제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8960건에서 2022년 19만1690건으로 51% 감소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3만6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 줄었다.

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7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 늘었다.

특히 40대 여성의 초혼이 1997년 1484건에서 지난해 5835건으로 3.9배 수준으로 늘었다.

배경에는 2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먼저 꼽힌다.

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와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를 보면 20대 초반 여성은 1997년 204만7000명에서 2022년 144만9000명으로 29.2% 줄었지만, 40대 초반 여성은 같은 기간 168만2000명에서 195만6000명으로 16.3% 늘었다.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혼인 건수에도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명품 매장 가맹점 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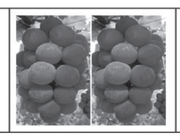
모집지역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전북(전주)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뽀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리스 이상)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엄나무		민엄나무 가시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꽉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갑을농원 묘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 (예금주:정준화)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임환성(600619-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서하로194번길 6, 106동 1103호 (오치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임환성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23호로 신청하여 2023년 3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3월 21일

• 상속인 : 1.진경화(640612-XXXXXXX)
광주 북구 신촌로 3, 301호(오치동)
2.임다혜(881020-XXXXXXX)
광주 북구 무등로 282-9, 501호(중흥동)
3.임현(910113-XXXXXXX)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174-44
• 신고기간 : 2023. 3. 21. ~ 2023. 5. 31.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진경화의 주소

71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